

韓國襖衣의 文獻的 考察

東宇專門大學 女性教養科
助教授 劉 寬 順

目 次

I. 緒 論	V. 斂 衣
II. 男子의 襖衣	VI. 結 論
III. 女子의 襖衣	參考文獻
IV. 南·女의 共用男衣	

I. 緒 論

古代로부터 우리 祖上들은 사람은 죽었어도 現世에서와 같은 生活을 來世에서 한다는 繼世思想을 믿어왔기 때문에 死者를 극진하게 厚葬하여 死者에 대한 尊敬과 推仰을 表示하였다.¹⁾ 朝鮮時代에 이르러 儒教의 喪禮는 人間의 性情과 人間으로서의 道理인 仁孝를 극진히 함으로써 宗教性을 表現하고

있으며²⁻⁴⁾ 生時에 지극하게 섬기는 것은 물론 死後에도 계속 禮로써 報恩을 行하는 倫理性도 내포하고 있다.⁵⁾ 이와 同時에 同一血族에 속하는 生者와 死者를 합친 全一體로서의 家族에 대한 共同體的 觀念을 濃厚하게 지니고 있어서 祖上에 대한 崇拜가 두터웠기 때문에,⁶⁾ 畏敬의 禮로서의 喪禮는⁷⁾ 民族의 生死觀, 來世觀, 靈魂觀, 祖上崇拜를 잘 나타내는 儀式인 것이다.⁸⁻¹⁴⁾

- 1) 李鍾恒, "우리 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關한 研究". 論文集(人文科學篇). 第9集.(서울; 國民大, 1975) pp. 132~134.
- 2) 崔基福, "儒教의 喪禮에 關한 研究—그 人倫性과 宗教性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서울; 成均館大 大學院, 1979) p. 34.
- 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南道篇) 서울, 文公部, 1977. pp. 134~135.
- 4) 金聖培, 韓國의 民俗, 서울, 집문당, 1980. p. 166.
- 5) 崔基福, 前揭書. pp. 30~31.
- 6) 李鍾恒, 前揭書. p. 133.
- 7) 竹內照夫, 四書五經. 東京, 平凡社, 昭和 50. p. 53.
- 8) 李必英, "韓國古代의 葬禮儀式研究". 論文集(人文科學編). 第17輯. (忠南; 韓南大, 1987) p. 257.
- 9) 會寧郡民會, 會寧郡誌. 1978. p. 193.
- 10)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9. p. 147.
- 11) 何聯奎, 中國禮俗研究. 臺灣, 中華書局, 中國民國 72. p. 85.
- 12) 李鍾恒, 前揭書. pp. 123~124.
- 13) 石宙善, 李朝宮中儀式節次에 따르는 服飾制度에 關한 研究". 同大論叢. 第5輯. (서울; 同德女大, 1975) p. 8.
- 14) 高福男, "죽음—來世의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喪禮에서의 喪服이 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시되는 의복이라면, 襖衣는 죽은 사람이 착용하는 옷이므로 엄숙하고 성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儀禮의 과정으로써의 喪禮나 喪服에 관한 論議는 많으나 襖衣에 관한 研究는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朝鮮時代의 禮書를 통하여 襖衣의 種類, 衣次와 色, 製作 및 使用法, 斂衣 등을 中心으로 襖衣에 관한 內容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禮書는 朝鮮時代의 代表的 禮書인^{15) 16)} 「四禮便覽」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年代的으로 朝鮮時代 初期의 禮書인 「國朝五禮儀」¹⁷⁾와 中期의 禮書인 「喪禮備要」¹⁸⁾를 後期の 禮書인 「四禮便覽」¹⁹⁾과 比較하였고, 「四禮便覽」 시기 이후에 실제적으로 상례 절차시에 행해졌던 「正文公愼終錄」, 「忠文公愼終錄」, 「韓山李氏愼終錄」²⁰⁾과도 비교하였다.

襖衣의 種類 중에서 掩, 纒, 幘目, 握手, 充耳, 襪, 冒, 舉布 등은 男·女가 共히 使用하므로 男·女 共用 襖衣로 구분하여 考察하였다.

II. 男子의 襖衣

1. 種 類

문헌에 나타난 男子 襖衣의 種類를 比較해 보면 <表 1>과 같다. 「四禮便覽」에 제시되어 있는 男子 襖衣의 種類는 幅巾, 網巾, 深衣, 搭襖, 帶, 裹肚, 袍襖, 汗衫, 袴, 單袴, 小帶, 勒帛, 履, 掩, 纒, 充耳, 幘目, 握手, 襪, 冒, 舉布 등이 있으며, 朝鮮初期의 「國朝五禮儀」에 나타나있지 않은 袍襖, 小帶, 勒帛, 掩, 纒, 冒, 舉布 등과 「喪禮備要」에 나타나있지 않은 小帶, 掩, 纒, 舉布 등이 「四禮便覽」에 나타나 있었다. 결국 조선시대 초기, 중기에 모두 보이지

않다가 후기에 나타난 품목은 小帶, 掩, 纒, 舉布였고, 초기에는 없었다가 중기부터 나타난 품목은 袍襖, 勒帛, 冒 등이었다.

반대로 초기에 있었던 품목이 중기 이후에 없어진 품목으로 帖裏가 있다. 이와 같이 「四禮便覽」 이전시기를 통하여 볼 때, 조선시대 초기, 중기에 없었던 품목들이 후기에 와서 많이 포함됨에 따라 후기로 갈수록 종류의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유교의 정착과 또 후대에 발굴된 유품은 상류층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경향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四禮便覽」 이후에 실제로 행해졌던 愼終錄과 比較해 볼 때, 多紆, 長衣, 單衫, 纒帶, 明衣²¹⁾ (單衣이며, 염습 할 때 제일 먼저 입히는 옷), 紙絞 등 「四禮便覽」에 없는 품목이 愼終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四禮便覽」 시기까지 보였던 搭襖, 汗衫, 冒나 「四禮便覽」 시기에만 보였던 掩, 纒가 愼終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문헌에 있는 품목이라도 실행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掩'은 조선초기, 중기에도 보이지 않았고 愼終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四禮便覽」의 문헌상에만 제시된 품목으로 중국의 규범을 그대로 본뜬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冒'의 경우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생각된다.

2. 衣次와 色

<表 1>에 제시한 襖衣의 種類를 中心으로 男子 襖衣의 衣次와 色을 보면 <表 2>와 같다.

幅巾은 衣次와 色이 黑緞, 紬, 紺은 冒色大貢緞 안은 藍貢緞, 熟甲紗 등으로 幅巾의 衣次는 緞, 緞, 紬, 紗이었으며, 色은 검은 색이 주된 색이었다. 이는 아마도 계절에 따라 衣次가 달랐을 것으로

15) 趙圻烘外 共著. 禮論. 서울, 誠信女大 出版部, 1983. p.31.

16) 金斗憲, 前掲書. p. 45.

17) 申叔舟等 受命編, 國朝五禮儀. 木板本. 成宗 6(1475)

18) 申義慶著, 喪禮備要. 木板本. 光海君 13(1621)

19) 李緯編, 四禮便覽. 憲宗 10(1844)

20) 「正文公愼終錄(金洙根<男> : 1798~1854)」, 「忠文公愼終錄(金炳國<男> : 1825~1904)」, 「韓山李氏愼終錄(金貞圭의 妻, 韓山李氏 : 1865~1915)」 : (원본은 溫陽民俗博物館에 所藏되어 있음.)

21) 徐命膺編. 攷事新書. 卷6. 儀禮門. 土の喪禮. 參照. 朝鮮總督府中樞院,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京城 ; 朝鮮總督府中樞院, 1944) pp.369~370.

22) 張哲秀, “葬制와 副葬品”.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查報告書. (溫陽 ; 溫陽民俗博物館, 1989) p. 120.

<表 1> 文獻에 나타난 襪衣의 種類

性 別 文 獻 年 代 襪 衣	男					女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四禮便覽	正文公愼終錄	忠文公愼終錄	四禮便覽	韓山李氏愼終錄
	1475	1621	1844	1854	1904	1844	1915
頭 衣	首 冠 網 巾 幘 目 充 耳	幅 巾 網 巾 幘 目 充 耳	幅 巾 網 巾 掩 纒 幘 目 充 耳	幅 巾 網 巾 幘 目 充 耳	幅 巾 網 巾 裹 頭 暝 目 充 耳	掩 纒 幘 目 充 耳	女 帽 裹 頭 面 帽 充 耳
表 衣	窠 龍 袍 搭 襖 帖 裏	深 衣 搭 襖	深 衣 搭 襖	深 衣 中 致 莫	深 衣 中 致 莫 長 衣	深 衣	圓 衫
上 衣	汗 衫	汗 衫 袍 襖	汗 衫 袍 襖	單 衫	單 衫 赤 古 里 明 衣	小 衫 袍 襖 衫 子	單 衫 赤 古 里 唐 衣
下 衣	袴	單 袴 袴 勒 帛	單 袴 袴 勒 帛	單 袴 袴 行 纏 多 紆	單 袴 袴 行 纏 多 紆	單 袴 袴 裳	單 袴 袴 廣 袴 裳
腰 帶	大 帶	大 帶	帶 小 帶	大 帶 腰 帶 雜 帶	大 帶 腰 帶 雜 帶	帶	大 帶
裹 肚	裹 肚	裹 肚	裹 肚	裹 衣		裹 肚	
手 衣	握 手	握 手	握 手	握 手	握 手	握 手	握 手
足 衣	襪 履	襪 履	襪 履	襪 履	襪 履	襪 彩 鞋	襪 履
其 他		冒	冒 舉 布	舉 布 紙 絞	紙 絞	冒 舉 布	舉 布 紙 絞

위 表는 國朝五禮儀. 卷7. 張 11~12., 喪禮備要. 卷上. 張 5~7.,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9~12., 正文公愼終錄. 襲具., 忠文公愼終錄. 襲具., 韓山李氏愼終錄. 襲具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음.

짐작된다. 網巾의 衣次와 色은 黑繪, 皂羅, 紺은 冒色大貢緞 안은 藍貢緞, 黑貢緞 등으로 衣次는 緞, 繪, 皂, 羅 등이었고 색은 幅巾과 같이 검은 색을 주로 사용했다. 深衣는 白細布, 細布, 極細布 등으로 衣次는 布이며, 색은 白色이고, 가장자리 선을 두르는 데는 黑繪이나 黑貢緞을 사용하였다. 搭襖는 衣次가 紵絲이며, 大帶는 白羅, 白繪, 紅貢緞 등을 사용하였고, 裹肚는 白絹, 紬, 綿布 등을 사용하였다. 袍襖는 紺은 粉紅貢緞 안은 白貢緞으로 안팎이 貢緞이라는 점이 같고, 汗衫은 紬, 綿布였으며, 袴는 紬, 綿, 白絹, 白十兩袖, 白貢緞 등이었다. 單袴는

紬, 綿布, 布, 綿, 白貢緞 등이었고, 小帶는 藍貢緞, 勒帛은 綿布, 白禾漢緞, 白貢緞이었으며, 履는 黑絹, 皂布, 襜紙, 黑紬, 糊紙, 赤履, 紵絲, 冒色大貢緞, 藍貢緞 등이어서 色과 衣次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치수와 製作 및 使用法

<表 1>에 제시한 男子 襪衣의 種類에 따른 치수는 <表 2>와 같다. 내용은 「四禮便覽」에서의 襪衣의 種類를 중심으로 하여 문헌에 제시된 품목에 한하였으므로 幅巾, 裹肚, 勒帛, 帶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表 2〉 文獻에 나타난 禮衣의 衣次와 色, 치수

性別 文獻	男						女						
	國朝 五禮儀		喪禮 備要		四禮 便覽		正文公 儀終錄	忠文公 儀終錄	四禮 便覽		韓山李氏 儀終錄		
	衣次· 色, 치수	衣次· 色	치수	衣次· 色	치수	衣次· 色	치수	衣次· 色	衣次· 色	衣次· 色	치수	衣次· 色	
禮衣	頭衣	幅巾		黑緇, 袖	長:六尺(指尺) 廣:一尺四寸	黑緇, 袖	長:六尺四寸 廣:尺四寸(指尺)	冒色大貢緇 內拱監貢緇	熟甲紗				
		網巾	皂羅	黑緇		黑緇		冒色大貢緇 內拱監貢緇	黑貢緇				
		幘目	青羅, 裏:縹緇	長尺二寸	縹緇, 袖 裏:縹緇	方:尺二寸 (指尺)	帛, 縹緇 裏, 袖	方尺二寸	冒色大貢緇 內拱紅貢緇	內外拱 黑貢緇	帛, 縹緇 裏, 袖	方尺二寸	
		充耳	新綿		新綿	대추씨크기	白纈, 雪綿	대추씨크기		雪綿子	白纈, 雪綿	대추씨크기	雪綿子
		掩					黑緇	廣終幅, 長五尺(周尺)			黑緇	廣終幅, 長五尺(周尺)	
		纒					黑緇	長六尺(周尺)			黑緇	長六尺 (周尺)	
		首冠	皂羅										
		女帽											紫的貢緇 內貢監貢緇
		裹頭								外拱紫芝貢緇 內拱監貢緇			紫的貢緇 內貢監貢緇
		面帽											紫的貢緇 內貢監貢緇
	表衣	深衣			白細布		白細布		極細布	細布黑 貢緇箱	玄衣素裳		
		袞龍袍											
		袴襪	紵絲										
		中致莫							主色貢緇內拱 八兩袖, 草綠貢 緇內拱八兩袖	監貢緇內拱 白貢緇			
		帖裏											
	長衣								玉色貢緇內 貢白貢緇				
	圓衫											草綠紫箱縵 內拱紅貢緇	
上衣	汗衫			紵, 綿布		紵, 綿布							
	單衫							白貢緇	白貢緇			白貢緇	
	小衫												
	袍襪												
	赤古里								粉紅貢緇 內拱白貢緇			(三)草綠 ·粉紅· ·黃紫箱縵	
	明衣												
	唐衣 (衫子)											軟豆紫箱縵 內貢紅貢緇	
下衣	單袴			綿, 布		紵, 綿布, 布		白貢緇	白貢緇			白貢緇	
	袴	白縹		紵, 綿		紵, 綿布		白十兩袖	內外拱白貢緇			白貢緇內 拱白貢緇	
	廣袴											白貢緇內 拱白貢緇	
	勒帛					綿布	長三尺, 廣三 寸(布帛尺)	白禾漢緇	白貢緇				
	裳											(二)紅·藍 紫箱縵內 拱白貢緇	
	多紵								藍貢緇				

性別 文獻	男						女					
	國朝禮儀		喪禮便覽		四禮便覽		正文公慎終錄	忠文公慎終錄	四禮便覽		韓山李氏慎終錄	
襖衣	衣次·色·치수	衣次·色	치수	衣次·色	치수	衣次·色	치수	衣次·色	衣次·色	衣次·色	치수	衣次·色
腰帶	大帶	白羅		白縐	廣:四寸			紅貢緞	黑貢緞縐			紅貢綾
	帶						廣二寸 정도			錦	廣二寸 정도	
	腰帶								藍貢緞			
	縵帶							眞出絨絲	五色眞絲			
裹肚	裹肚	白縐				紬, 綿布	廣全幅, 長: 몸을 감을 만하게			紬, 綿布		
	裹衣							玉色八兩紬				
手衣	握手	青羅, 裏: 縐	長尺二寸, 廣五寸	玄帛, 紬	長尺二寸, 廣五寸(指尺)	帛, 縐	長尺二寸, 廣五寸	冒色大貢緞內拱紅貢緞	黑貢緞內貢藍貢緞	帛, 縐	長尺二寸, 廣五寸	紫的貢緞內拱藍貢緞
足衣	履	白縐						內拱白木漢緞	內外拱白貢緞			白貢緞
	履	赤履, 紵絲		黑紬, 糊紙	長二尺 정도	黑絹, 皂布, 糊紙		冒色大貢緞	藍貢緞			紅貢緞
	彩鞋											
其他	冒			紬, 絹	玄七尺, 縐七尺(指尺)	紬, 絹	質七尺殺七尺(造禮器尺)			紬, 絹	質七尺殺七尺(造禮器尺)	
	舉布					布	三·四尺(布帛尺)	中細布一疋		布	三·四尺(布帛尺)	中細布一疋
	紙紋											

위 表는 國朝五禮儀. 卷7. 張 11~12., 喪禮備要. 卷上. 張 5~7.,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9~12., 正文公慎終錄. 襲具., 忠文公慎終錄. 襲具., 韓山李氏慎終錄. 襲具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음.

보고자 한다.

幅巾은 <表 2>에서와 같이 「喪禮便覽」에서는 指尺²³⁾을 기준으로 길이가 六尺四寸이고 폭은 一尺四寸인데, 「禮備要」에는 폭이 一尺四寸으로 되어 있어 「四禮便覽」에서와 같고, 길이는 六尺으로 「四禮便覽」의 경우보다 조금 작다.

裹肚는 幅이 全幅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몸을 감을 만하게 하라 하였고, 男子와 女子의 차이점은 男子의 裹肚는 四角에 끈이 있는데, 女子의 裹肚는 아래 兩角에 끈이 없다²⁴⁾는 것이다.

勒帛은 布帛尺²⁵⁾을 기준으로, 길이가 三尺 정도, 폭은 三寸 정도로 되어 있다. 한쪽 머리에 끈이 두개가 있는데, 이 끈으로 정강이에서 무릎까지 바지 가랑이를 둘러 매는 것이다.²⁶⁾

帶는 폭이 二寸 정도인데, 女子의 帶와 치수가 같다.

Ⅲ. 女子의 襖衣

1. 種 類

문헌에 나타난 女子襖衣의 種類를 비교해 보면 <表 1>과 같다. 「四禮便覽」에 제시되어 있는 女子襖衣의 種類는 深衣, 帶, 衫子, 袍襖, 小衫, 裹肚, 裳, 袴, 單袴, 彩鞋, 掩, 纏, 充耳, 幘目, 握手, 縵, 冒, 舉布 등이었으며, 실제로 행해졌던 「韓山李氏慎終錄」과 비교해 보면, 「四禮便覽」에 포함되어 있는 小衫, 掩, 纏, 冒 등이 「韓山李氏慎終錄」에 나타나 있지 않았고, 「韓山李氏慎終錄」에 포함되어 있는 單衫, 廣袴, 女帽, 紙紋, 裹頭 등은 「四禮便覽」에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四禮便覽」에서는 單袴와 袴만을 입는 반면, 「韓山李氏慎終錄」에는 그 위에 廣袴를 더 입어 바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冒'와 '掩'은

23) 指尺에 대하여는 中指의 中節이 1寸이 된다고 하였음. (喪禮備要. 卷上. 張 5).

24)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9~10.

“裹肚……四角有繫……女子裹肚…制同男子裹肚但下兩角無繫”

25) 布帛尺의 기준에 대하여는 朴京子는 四禮便覽. 卷5에 圖版으로 게재되어 있는 그림을 cm로 실측하여 환산한 수치로부터, 1尺의 기준이 周尺 22cm, 造禮器尺 27.6cm, 營造尺 30cm, 布帛尺 44.6cm, 指尺 33cm라고 한 바 있음. (朴京子, “閩閩叢書解說”, 韓國服飾論攷. (서울: 新丘文化社, 1983) p. 121.)

26) 四禮便覽. 卷1. 冠禮. 張 11.

男子的襪衣種類와 마찬가지로 문헌상에 나타나 있으나 실제 사용에서 제외된 품목이었다.

2. 衣次와色

〈表1〉에 제시한 襪衣한 種類를 중심으로 女子襪衣의 衣次와 色을 보면 〈表2〉와 같다.

深衣는 玄衣素裏로서 白細布의 男子深衣와 色의 差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용품목으로서의 圓衫은 袷이 草綠이고 안은 紅貢綾이었다. 帶는 錦, 紅貢綾 등이었고, 衫子는 袷이 軟豆色 안은 紅貢綾이었으며, 裏肚는 紬, 綿布를, 裳은 紅치마 藍치마로 안은 白貢緞이었다. 袴와 單袴는 白貢緞이었으며, 履는 紅貢緞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男·女의 共用襪衣

1. 種 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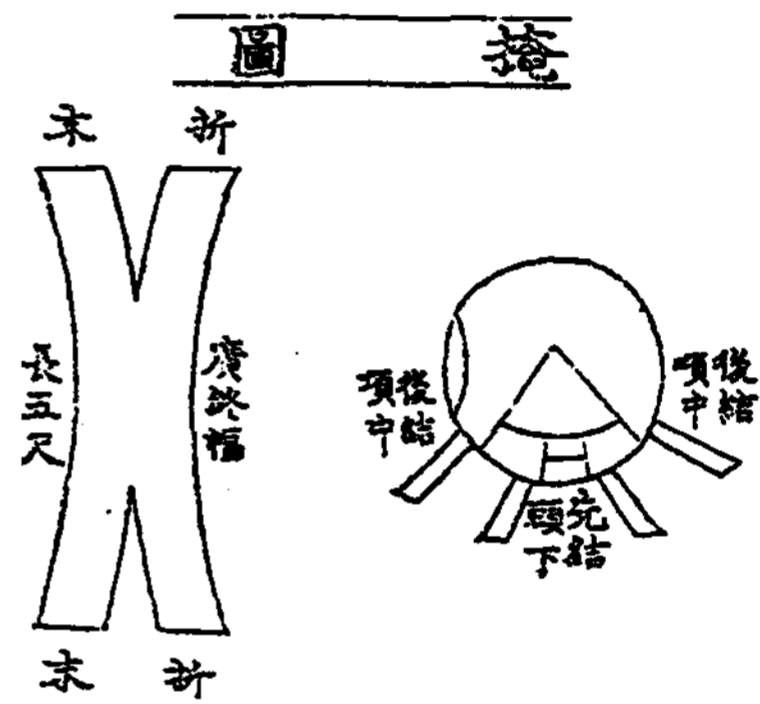
男·女가 共用하는 掩, 纁, 充耳, 幘目, 握手, 襪, 冒, 舉布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掩은 머리를 싸는 것^{27) 28)}으로 이에 대하여 沙溪는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冠을 쓰지 않고 笄를 하지 않으며, 다만 帛으로 머리를 싸는데 이것을 掩이라고 한다²⁹⁾고 하였고, 掩은 單을 쓰고 裏가 없는 것³⁰⁾이다. 형태를 보면 〈圖 1-1〉³¹⁾, 〈圖 1-2〉³²⁾와 같다.

纁는 머리를 싸는데 쓰이는 것으로서 〈士冠禮〉에 머리를 싸고 상투를 싸기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一名 머리쓰개(纁)라고도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남녀가 纁를 通用했으나 지금은 男子가 網巾을 쓰는데 이것이 곧 纁가 전해져 남은 制度³³⁾인 것이



〈圖 1-1〉 掩圖(家禮增解. 卷4. 張 28)



〈圖 1-2〉 掩圖(家禮輯覽圖說)

다.

充耳는 귀를 막는 것으로 2개가 필요하였고³⁴⁾³⁶⁾, 이는 ‘瑱’이라고도 하였는데 ‘瑱’은 充耳와 同意語이며 ‘塞耳’라고도 하고³⁵⁾ 실물로는 玉類를 가리킨다. 充耳는 玉瑱이라 하여 대개 玉類를 사용하는데, 中國人은 玉을 ‘天地의 精’, ‘陽之至純’이라고 하고 또 玉의 德을 讚美하여 道教的인 一種의 信仰

27)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10.

28) 金奉鉉, 朝鮮의 通過儀禮. 國書刊行會. 昭和 57. p. 315.

29) 家禮源流, 卷6. 張 20.

“……古者人死不冠不笄但以帛裹其首謂之掩……”

30) 常變通攷. 卷7. 張 28.

31) 家禮增解. 卷4. 張 28.

32) 家禮輯覽. 圖說. 張 38.

33)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10. 張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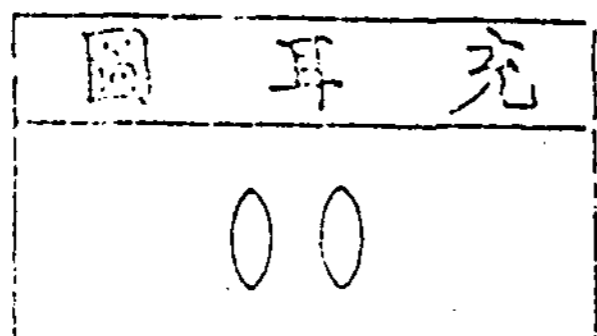
“纁用以包髮裹髻者……一名卽古者男女通用今男子網巾卽此遺制”

34) 國朝五禮儀. 卷7. 張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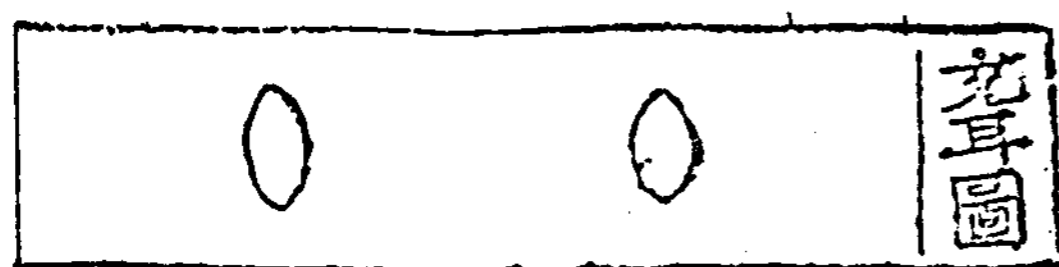
35) 四禮便覽. 卷 3. 喪禮 1. 張 10.

36) 喪禮備要. 卷上. 張 6.

과 결합시킬 만큼 尊重 愛用하고 몸차림에는 필수적인 것³⁷⁾이어서 죽은 후에도 몸의 구멍마다 玉이나 水晶을 넣었다. 充耳의 형태를 보면 <圖 2-1>³⁹⁾, <圖 2-2>⁴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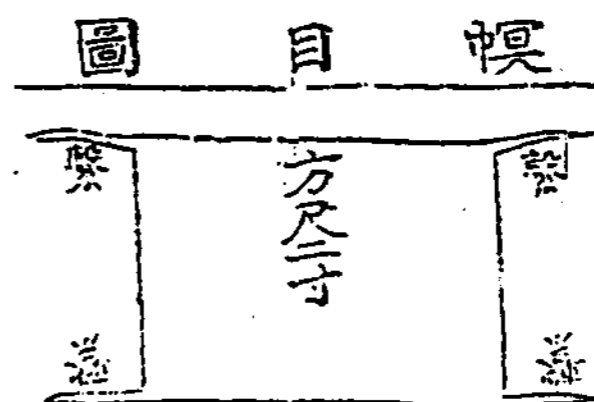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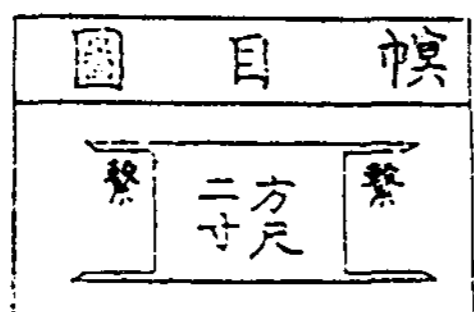


<圖 2-1> 充耳圖(四禮便覽喪圖)



<圖 2-2> 充耳圖(喪禮備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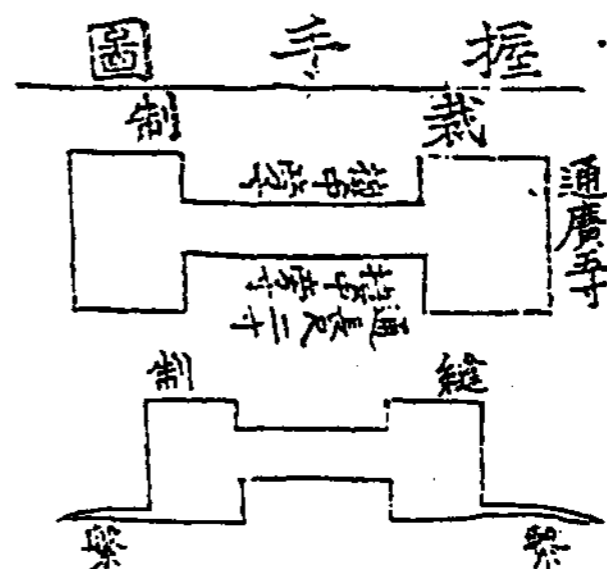
幘目은 얼굴을 덮는 것으로, 土喪禮疏에는 네모에 끈이 있다⁴¹⁾고 하였고, 형태를 보면 <圖 3-1>⁴²⁾, <圖 3-2>⁴³⁾와 같으며, 「韓山李氏慎終錄」에는 面帽라고 기재되어 있다.⁴⁴⁾ 결국 얼굴을 덮는다는 의미에서 같은 품목임을 짐작할 수 있다.



握手는 손을 싸는 것으로, 2개가 필요하여,⁴⁵⁾ 사람이 죽으면 氣가 없게 되어 손가락이 자연히 굽어지기 때문에 握手를 사용하는 것은 손가락을 펴게 하려고 하는 것⁴⁶⁾이다. 그 형태를 보면 <圖 4-1>⁴⁷⁾, <圖 4-2>⁴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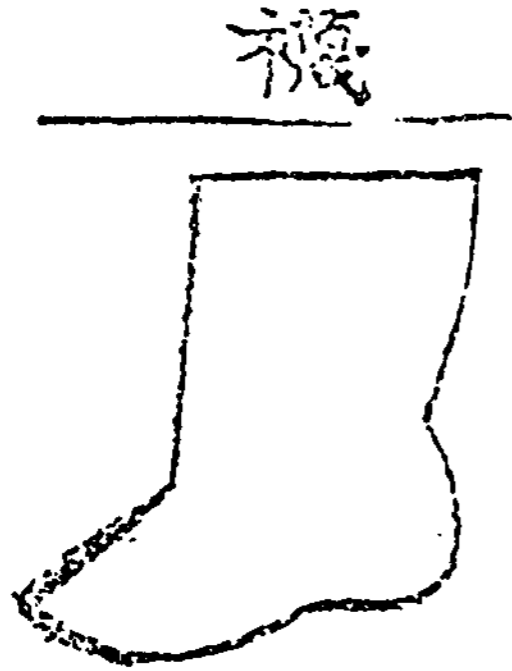
<圖 4-1> 握手圖(四禮便覽喪圖)



<圖 4-2> 握手圖(喪禮備要圖)

37)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1937. 第二章 漢六朝の祭服 參照. 柳喜卿, 前掲書. p. 254에서 재인용.
 38) 李如星, 前掲書. p. 256.
 39) 四禮便覽. 卷3. 喪圖. 張 2.
 40) 喪禮備要. 圖. 張 4.
 41)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10.
 42) 四禮便覽. 卷3. 喪圖. 張 2.
 43) 喪禮備要. 圖. 張 4.
 44) 韓山李氏慎終錄. 襲具參照.
 45)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10.
 46) 疑禮問解. 卷1. 張 51.
 “...人死則無氣手指自然皆屈用握手者欲其指之伸也”
 47) 四禮便覽. 卷3. 喪圖. 張 2.
 48) 喪禮備要. 圖. 張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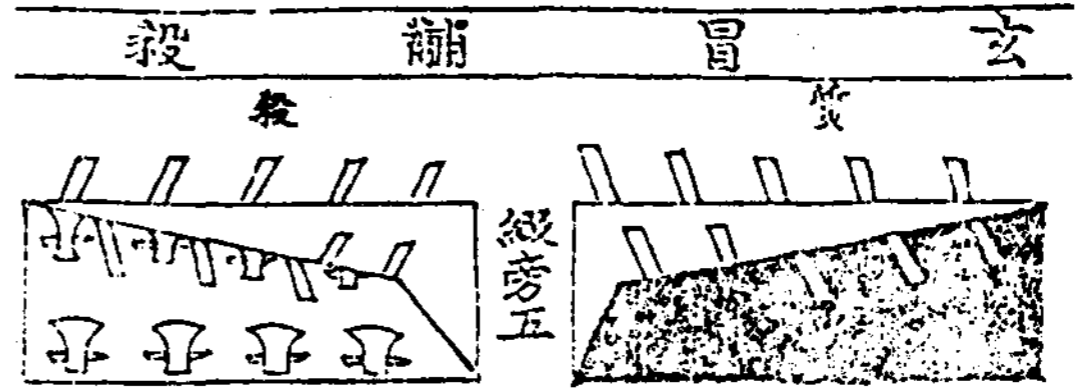
襪은 足衣이며, 2개가 필요하다.⁴⁹⁾ 그 형태를 보면 <圖 5>⁵⁰⁾와 같으며, 숨을 둔다⁵¹⁾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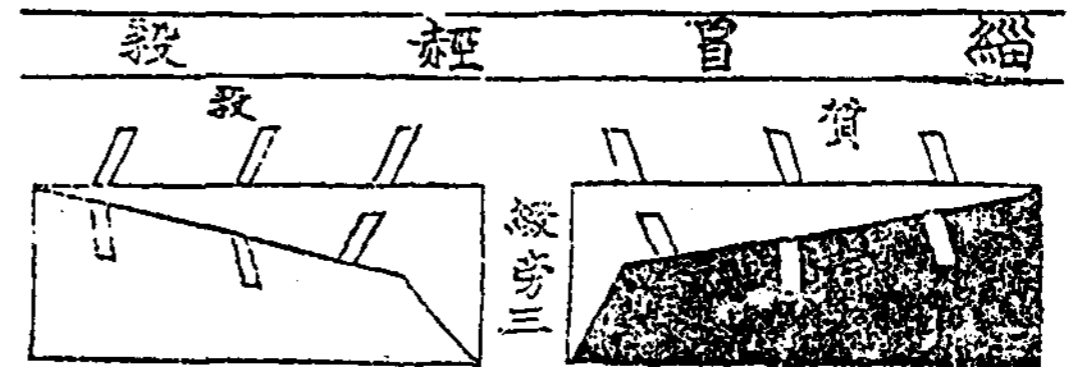
<圖 5> 襪 圖(家禮輯覽圖說)

冒는 <土喪禮> 註에 尸身을 싸는 것⁵²⁾이라 하였는데, 형체를 가리는 것으로, 冒를 씌우지 않으면 尸身의 모습이 드러나서 남들이 혐오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씌우는 것이다.⁵³⁾ 冒의 형태는 <圖 6-1>, <圖 6-2>, <圖 6-3>,⁵⁴⁾ <圖 6-4>⁵⁵⁾와 같다. <圖 6-1>~<圖 6-3>에서 보면 錦冒黼殺는 綴旁이 일곱이고, 玄冒黼殺는 綴旁이 다섯이며, 緇冒經殺는 綴旁이 셋이다.

舉布는 尸身의 겨드랑이에 넣어 두는 것으로 사용되며,⁵⁶⁾ 慎終錄에서도 이를 사용했던 기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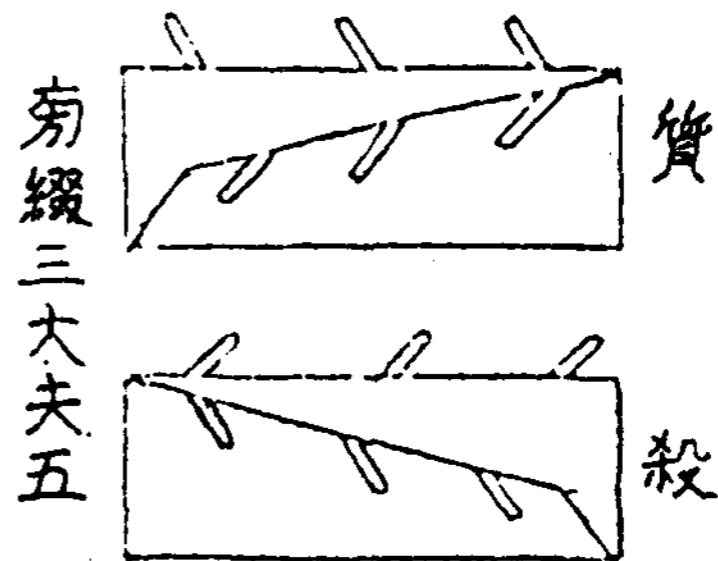


<圖 6-2> 玄冒黼殺(家禮輯覽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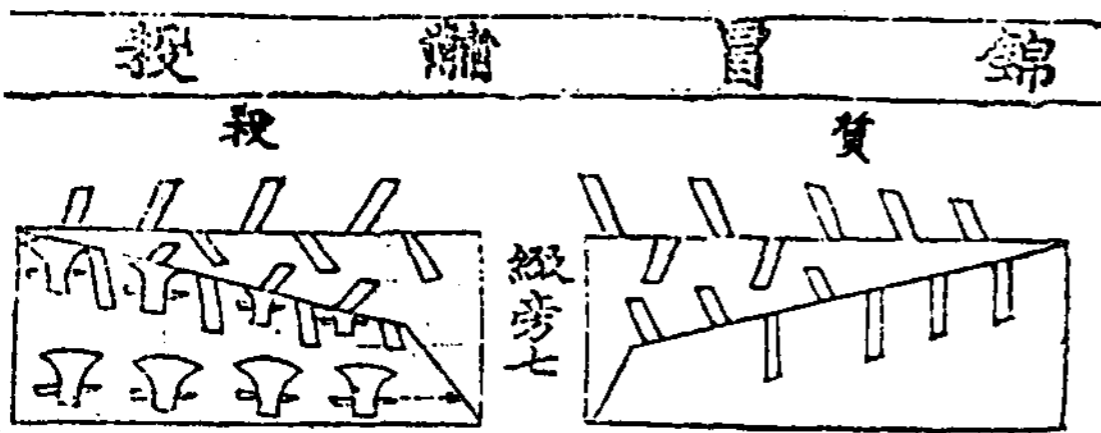
<圖 6-3> 緇冒經殺(家禮輯覽圖說)

圖 冒



<圖 6-4> 冒 圖(四禮便覽喪圖)

보이고 있다.⁵⁷⁾ ⁵⁸⁾ 尸身의 斂한 모습이 긴 장방형의 형태로 똑바로 되어져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륙을 고여서 형태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 피륙이 舉布인 것이다. 최근에는 白紙 또는 補空品으로 하기 때문에 長方形이 잘 되지 않고 있다.



<圖 6-1> 錦冒黼殺(家禮輯覽圖說)

49) 家禮源流. 卷6. 張 19.
 50) 家禮輯覽. 圖說. 張 36.
 51) 正文公慎終錄. 襲具參照.
 52)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10~11.
 53) 家禮源流. 卷6. 張 19.
 54) 家禮輯覽. 圖說. 張 38.
 55) 四禮便覽. 卷3. 喪圖. 張 2.
 56)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11.
 57) 正文公慎終錄. 襲具參照.
 58) 韓山李氏慎終錄. 襲具參照.

2. 衣次와 色

〈表 1〉에 제시한 襪衣의 種類를 중심으로 男·女 共用襪衣의 衣次와 色을 보면 〈表 2〉와 같다.

掩과 纏는 黑繪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充耳는 白纈, 雪綿, 新綿, 雪綿子 등으로 흰색 솜이나 명주 솜을 주로 썼다. 幘目은 帛, 紬, 緇經裏, 겉은 靑羅 안은 纈絹, 겉은 冒色大貢緞 안은 紅貢緞, 또는 겉과 안이 黑貢緞인 경우가 있었다. 握手는 겉은 帛 안은 纈色, 玄帛, 紬, 겉이 靑羅 안은 纈絹, 겉은 冒色大貢緞 안은 紅貢緞, 겉은 黑貢緞 안은 藍貢緞, 겉은 紫的貢緞 안은 藍貢緞 등으로 겉과 안이 각각 차이를 보였다. 襪은 白絹, 白禾漢緞, 白貢緞 등으로 襪의 衣次는 絹, 緞이며 흰색이 주된 색이었고, 冒는 絹이나 紬를 사용하였는데, 〈王制〉 陳註에 의하면 生時의 玄衣와 纈裳을 본떠서 冒의 色은 上이 玄, 下는 纈으로 하여 天과 地를 나타낸다⁵⁹⁾고 하였고, 舉布는 布, 中細布 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衣次는 無紋의 緞,⁶⁰⁾ 繪, 紬가 사용되었고, 품목에 따라 紗, 羅, 紵, 綿, 布 등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色은 白, 玄, 纈, 紅, 藍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3. 치수와 製作 및 使用法

男·女 共用襪衣의 種類에 따른 치수는 〈表 2〉와 같으며, 內容은 「四禮便覽」에서의 襪衣의 種類를 중심으로 하여 문헌에 제시된 품목에 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掩은 폭이 終幅, 길이가 周尺을 기준으로 하여 五尺이었으며, 그 양쪽 끝을 갈라서 四脚으로 만들어 착용하는데,⁶¹⁾ 뒤의 두 가닥은 턱 밑으로 매고 앞의 두 가닥은 목 뒤로 매었다.⁶²⁾ 纏는 길이가 周尺을 기준으로 六尺으로 겹으로 만들며, 착용법은 정수리에서 앞 이마 위에 마주 대어 상투를 감기로 되었 있다.⁶³⁾ 充耳는 그 치수가 尺數로서가 아니라 희고 고운 솜을 대추씨 만큼의 크기로 하여 귀를 막는다고 되어 있다. 幘目은 길이가 一尺二寸으로 〈土喪禮〉 疏에 네모에 끈이 있다고 하였고, 註에는 솜으로서 채운다^{64)~66)}고 하였으며, 四脚에 紫絹로 된 끈을 두어 뒤에서 맨다⁶⁷⁾고도 하였다. 握手는 길이가 一尺二寸, 폭이 五寸이었으며, 끈의 길이가 한 쪽은 一尺 五寸~六寸이고, 한 쪽은 三尺이다. 握手의 안은 솜으로 채우며 양 끝아래 모서리에 있는 끈으로 손바닥 위에서 매고,⁶⁸⁾ 손 전부를 싸는 것이 아니라 엄지를 뺀 다른 손가락만 싸서 묶는 것이다.⁶⁹⁾ 襪에는 솜을 둔다^{70) 71)}고 하였다. 冒는 質과 殺가 七尺인데, 上體를 싸는 것을 質이라고 하며, 質의 길이는 팔을 펴서 손이 닿는 곳까지의 길이로 한다. 下體를 싸는 것을 殺라고 하며, 冒는 襲을 한 후에 사용한다.⁷²⁾ 먼저 殺로써 발을 싸서 올리고 그 다음에 質로써 머리를 싸서 내린다. 제작법은 質·殺 모두 가운데를 구부려서 한 쪽 가장자리는 꿰매어 붙이고 꿰매지 않은 한 쪽 가장자리에는 小帶(즉, 綴旁)를 다는데, 帶의 길이는 二尺으로 한다⁷³⁾고 하였다. 「家禮源流」에서도 冒에 관해서

59) 家禮增解. 卷3. 張 78.

“……上玄下纈天地……”

60) 李選著, 芝湖集. 卷6. 參照. 朝鮮總督府中樞院, 前揭書. 1944. P. 1784.

61)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10.

62) 李漢, 星湖僊說. 卷5.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Ⅲ. 서울, 敎文社, 1982. p. 329.

63) 四禮便覽. 卷1. 冠禮. 張 22.

64)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10.

65) 喪禮備要. 卷上. 張 6.

66) 家禮增解. 卷3. 張 75.

67) 國朝五禮儀. 卷7. 張 12.

68)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10.

69) 金漢重. 安東誌. 서울, 故鄉文化社. 1987. p. 172.

70)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10.

71) 喪禮備要. 卷上. 張 6.

72) 李選. 前揭書.

논하고 있는데, 丘氏가 말하기를 “冒의 制는 一頭를 縫合하고, 다시 一邊을 縫連하며 나머지 一邊은 꿰매지 않고, 다시 꿰매지 않은 邊 上·下에 帶를 두어서 매는 것이데, 지금의 사람들은 古制를 알지 못해서 바로 꿰매기를 兩袋같이 하여 이미 斂한 衾衣 위에 겹쳐 두니 옳지 않다”⁷⁴⁾고 하였다. <圖 6-1>~<圖 6-3>에 의하면 君은 小帶가 아래·위에 각각 7개이고, 大夫는 小帶가 각각 5개이며 士는 小帶가 각각 3개씩이다. 여기에서 「家禮輯覽」에 의하면 ‘綴旁’에 대한 論議가 있는데, <禮記>에 “天子의 堂은 九尺이다”라고 하였고, 註에 “陽數은 九에서 끝나는 것이고 天子는 陽道의 極을 본받았기 때문에 堂階의 높이는 그 尺이 九로써 기준을 삼은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이하는 둘씩 감소되기 때문에 或은 七로, 或은 五로, 或은 三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綴旁이 七, 或은 五, 或은 三인 것은 이와 같은 뜻에 근거한 것이니, 天子의 冒는 綴가 九일 것이다”⁷⁵⁾라고 하여 天子의 綴旁은 九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舉布는 布 三~四尺, 또는 中細布 一疋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V. 斂 衣

「四禮纂說」에 襲衣(襚衣)는 尸身에 옷을 입히는 것이고, 斂衣는 尸身을 싸는 것⁷⁶⁾이라고 하여, 襲과 斂을 구분하고 있고, 襲衣를 입힌 다음에 斂衣가 입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襚衣와 관련이 되는 斂衣를 「四禮便覽」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小 斂

小斂은 죽은 다음날에 行하거나,⁷⁷⁾ ⁷⁸⁾ 죽은지 3일째 되는 날에 行하는 절차⁷⁹⁾라고 하였다.

小斂에 필요한 小斂具로는 櫛, 枕, 衾, 絞, 上衣, 散衣, 絹, 新綿이 있다.⁸⁰⁾

衾은 紬를 사용하여 綿을 둔다. 사람의 長短에 따라 마름질하고 길이는 五尺반쯤으로 한다. <士喪禮>에 緇衾纈裏라고 하여 겉은 검은색, 안은 붉은색임을 알 수 있고, 紉(衾領)은 없다고 하였으며 註에는 모든 衾은 五幅이라고 하였다.

絞는 鍛濯한 緇布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세로 1쪽은 길이가 十尺쯤 되고, 양 끝을 쪼개어서 각기 3조각으로 만들며 그 폭 중간의 3분의 2는 남겨두고 쪼개지 않는다. 가로 3쪽은 길이가 각기 四尺 혹은 三尺 정도이며, 매폭의 양 끝을 각각 쪼개어서 3조각으로 만들고, 그 폭의 중간 八寸쯤은 남겨두어 쪼개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布의 넓이가 매우 좁아서 4쪽을 쓰는데 매폭의 양 끝을 각각 쪼개어서 2조각으로 만들고, 다시 그 반폭을 더해서 모두 9조각이다. 用布의 치수와 분량은 尸身의 길이와 체격에 따라 정하는데, 가로는 몸을 둘러서 덮어서 서로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세로는 머리와 발을 덮어서 정 가운데에서 맬 수 있을 만큼을 취하면 된다. 그 형태를 보면 <圖 7>⁸¹⁾과 같다.

上衣는 深衣나 團領과 같은 종류의 것이며, 內喪⁸²⁾에는 圓衫과 같은 종류의 것을 사용한다.

73) 申叔舟等受命編. 國朝五禮儀 序例, 卷5. 凶禮.

74) 家禮源流. 卷6. 張 20.

“...冒制縫合一頭又縫連一邊餘一邊不縫又於不縫之邊上下安三帶以結之今人不知古制乃縫如兩袋套於既斂衾衣之上非是……”

75) 家禮輯覽, 卷4, 張 20.

“綴旁……天子之堂九尺註陽數窮於九 天子則禮陽道之極故堂階之高其尺以九爲飾自是而下降殺以兩故或以七或以五或以三焉以此觀之此綴旁七或五或三者恐亦是此儀而天子之冒其亦綴九歟”

76) 四禮纂說. 卷3. 張 2.

77)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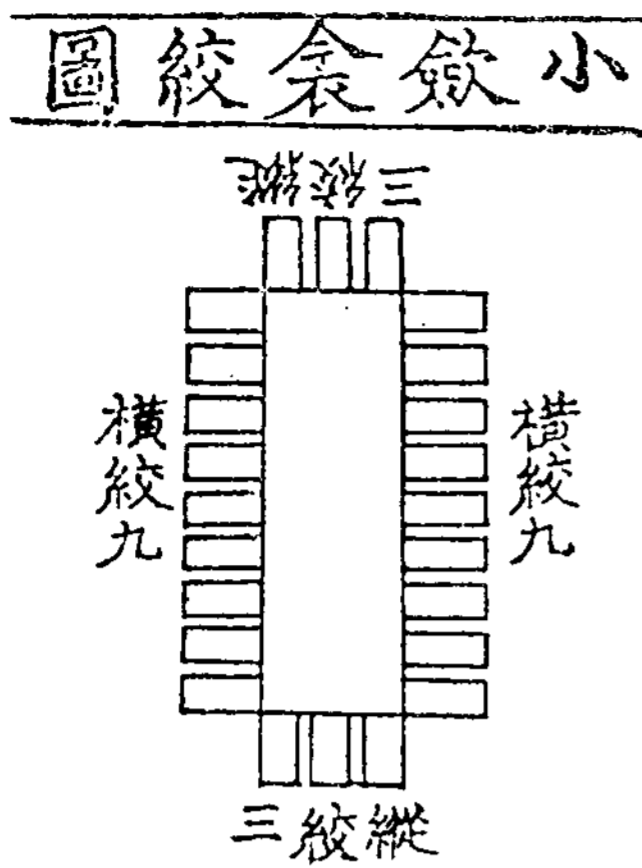
78) 喪禮備要. 卷上. 張 15.

79) 國朝五禮儀. 卷7. 張 16.

80)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21.

81) 四禮便覽. 卷3. 喪圖. 張 2.

82) 內喪은 女子의 喪을 뜻하는 것임.



〈圖 7〉小斂衾紋圖(四禮便覽喪圖)

散衣는 袍襖, 雜衣, 袴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補空品으로써 사용된다. 十九稱을 사용하며,^{83) 84)} 특별히 두툼한 襖를 하나 두는데 이것은 머리를 싸는 것으로서 絹위에 포개서 펴는 것이다.

絹은 치수는 三~四尺 혹은 一匹이며, 머리의 밑 부분의 포개 옷의 아래에 펴는 것이다.

新綿은 補空品으로써 사용한다.

이상과 같이 준비된 小斂具로서 小斂을 행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褥을 깔고 席과 枕을 놓은 다음 그 위에 絞를 하는데, 橫絞는 셋으로 밑에 놓고 몸을 둘러서 서로 매기에 넉넉하게 하며, 縱絞는 하나로 위에 놓고 首足を 덮어 몸의 한가운데 매기에 넉넉하게 한다.⁸⁵⁾ 이어서 衾을 펴고, 絹을 펴고, 散衣를 놓고, 그 다음에 上衣를 펴서 十九稱을 행하는데, 이 十九稱은 모두 겹옷, 접이붙이며 옷의 양 끝을 말아서 양 어깨와 빈 곳을

채운다. 衣는 顛倒케 하되 正方을 취하며 오직 上衣만은 거꾸로 하지 않는다.⁸⁶⁾ 또 옷을 말아서 양 쪽 종아리에 채우고, 남은 옷으로 尸身을 싸는데 左右의 높이를 腹部와 가지런하도록 고르고 반듯하게 하여⁸⁷⁾ 머리와 발끝까지가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⁸⁸⁾ 그 후에 衾으로 발을싸고 다음에 머리를 싸며 왼쪽을 싸고 오른쪽을 싼 후 絞로 묶는다.⁸⁹⁾

이와 같이 小斂이 十九稱이라 하는 것은 모두 몸에 입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方向만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領을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며, 上衣는 존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領이 위에 있게 하는 것이다.⁹⁰⁾

小斂衣의 十九稱에 대한 論議를 보면, 喪大記에 “小斂衣는 十九稱이며, 註에 天子 이하 모두 十九稱이니, 天·地의 終數를 본받은 것이다. 즉 天은 陽이고 地는 陰이며 홀수는 陽이고 짝수는 陰이다. 그러므로 1에서 10까지에 있어서 陽數의 마지막 數는 9이고 陰數의 마지막 數는 10이다. (원래 10은 0이므로 8이 陰數의 마지막 數인데 여기서는 8대신에 10을 마지막 數로 보았음) 天地의 初數는 天은 1이고 地는 2이며 마지막 數는 天은 9이고 地가 10이다. 사람은 天地의 사이에서 죽는다. 그러므로 마지막 數를 취하여 斂衣의 稱數로 한 것이니 尊卑가 모두 한가지 이다.”⁹¹⁾라고 하여 모두가 十九稱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2. 大 斂

大斂은 小斂의 다음날 즉, 죽은지 3일째 되는 날에 行하거나⁹²⁾ 죽은지 5일째 되는 날에 行하는 절차⁹³⁾라고 하였다.

83) 世祖實錄. 卷4. 2年 7月.

84) 世宗實錄. 卷111. 28年 3月.

85) 國朝五禮儀序例. 卷5. 凶禮. 斂殯圖說. 法制處. 法制資料 第 125輯 國조오례의(4). p. 289.

86) 權浩直, 喪·祭禮常行抄錄, 서울, 回想社, 1986. p. 68.

87) 金春東, “喪禮”. 韓國民俗大觀. 第1卷. (서울;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0) pp. 625~626.

88) 梁在淵外 3人, 韓國風俗誌. 서울, 乙酉文化社, 1971. p. 236.

89) 李種洙, 四禮正解, 서울, 信和文化社, 1962. p. 130.

90) 李恒福編, 四禮訓蒙. 張 36.

91) 李懋 編, 四禮纂說.

“...天子以下皆同十九稱法天地之終數也天地之初數天一地二終數則天九地十人在天地間而終故取終爲斂衣稱數尊卑共爲一節也”

92)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26.

93) 喪禮備要. 卷上. 張 19.

大斂에 필요한 大斂具로는 褥, 枕, 衾, 絞, 上衣, 散衣가 있다.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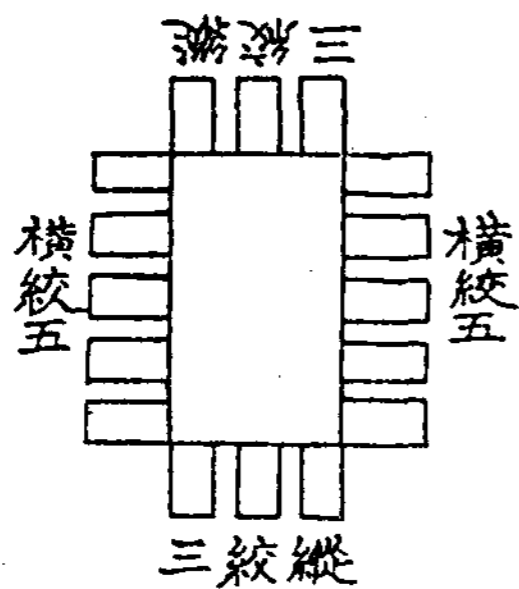
衾은 2개인데 막 죽었을때와 大斂때에 덮는 것이다.

絞는 鍛濯한 緇布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세로 1폭은 그 양 끝을 쪼개서 각각 3조각으로 만들며, 小斂때와 같다. 가로는 2폭을 쓰는데 매 폭을 셋으로 쪼개서 6조각으로 만들어 그 하나는 버리고 쓰지 않는다. 布가 좁으면 3폭을 써서 매 폭을 반으로 쪼개어 6조각으로 만들어 그 하나를 버린다. 모두 小斂絞보다 약간 길며 그 형태를 보면 <圖 8>⁹⁶⁾과 같다.

上衣는 小斂에서와 같은 내용이다.

散衣는 종류는 小斂에서의 내용과 동일하며, <士喪禮>에 30稱이라고 하였고, 없으면 있는 한도 내에서 행한다. 또한 散衣의 稱에 대하여 <喪大記>에 士는 30稱이며, 大夫는 50稱이라 하였고,⁹⁷⁾ 君은 90稱이라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稱은 반드시 겹옷과 겹이불을 사용한다.⁹⁸⁾고 하였다.

圖絞衾斂大



<圖 8> 大斂衾絞圖(四禮便覽喪圖)

大斂의 절차는 褥과 枕을 놓고 絞를 펴는데, 橫은 다섯으로 아래에 놓고 縱은 셋으로 위에 놓은 다음, 이어서 衾을 펴고, 上衣를 놓고 그 다음 散衣를 펴서 大斂을 행한다. 먼저 枕을 제거하고 衾을 거두어 싸는데 발을 싸고 머리를 싸며, 그 다음 左를 싸고 右를 싣는다. 「備要」에 의하면 縱을 먼저 싸고 橫을 그 다음에 싸며, 生時에 떨어진 머리카락과 齒, 손톱, 발톱을 주머니에 넣어 관 모퉁이, 옷소매, 버선 속에 넣는다.⁹⁹⁾⁻¹⁰¹⁾ 이하 補空의 내용은 小斂때와 동일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衣衾의 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小斂·大斂의 명칭이 있는 것이며, 小斂·大斂이란 것은 단지 尸身을 싸서 덮어 그대로 확고하게 하는 것인데, 이 뜻을 모르고 묶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을 능사로 삼아 힘센 사람을 동원하여 힘을 다해 絞를 매는 것을 잘못이라고¹⁰²⁾하였다.

또한 斂에 대하여 高氏가 말하기를 “斂은 옷을 위주로 하고, 小斂의 옷은 반드시 十九稱으로 하고 大斂의 옷은 많아서 50稱에까지 이르는데, 이미 襲을 한 후에는 斂衣가 이와 같이 많기 때문에 絞로 묶지 않으면 능히 堅實하게 할 수가 없다. 모든 물건은 묶어야 견실하게 되며, 衣衾이 尸身을 충분히 감추어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斂에 있어서 絞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喪者는 衣衾을 얇게하고, 絞를 시행하지 않고, 尸身의 形體가 드러남을 두려워해서 급히 棺에 들여 놓고 入棺을 小斂으로 여기고, 棺을 덮는 것을 大斂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禮에 어긋난 것이다”¹⁰³⁾라고 하여 小斂·大斂의 禮를 잘 지킬 것은 강조하고 있다.

94) 國朝五禮儀. 卷7. 張 18.
 95)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26.
 96) 四禮便覽. 卷3. 喪禮1. 喪圖. 張 2.
 97) 喪禮備要. 卷上. 張 18.
 98) 國朝五禮儀. 卷7. 張 18~19.
 99) 春川文化院. 春州誌. 1984. p. 475.
 100) 韓龍得, 冠婚喪祭. 서울. 弘新文化社. 1980. p. 164.
 101)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 27.
 102) 家禮輯覽. 卷4. 張 42.
 103) 四禮纂說. 卷3. 張 22.

VI. 結 論

이상과 같이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韓國襪衣의 內容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다.

1. 男子襪衣의 種類로는 幅巾, 網巾, 深衣, 搭襖, 帶, 裹肚, 袍襖, 汗衫, 袴, 單袴, 小帶, 勒帛, 履, 掩, 纏, 充耳, 幘目, 握手, 襪, 冒, 舉布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袍襖와 勒帛, 冒는 朝鮮時代 中期인 1600年代부터 나타나며, 小帶, 掩, 纏, 舉布 등은 朝鮮時代 後期인 1800年代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慎終錄과 比較해 보면 掩, 冒의 사용은 거의 없는 듯하였으며 傳來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시된 품목에 불과할 것이다.

女子襪衣의 種類로는 深衣, 帶, 衫子(唐衣), 袍襖, 小衫(赤衫), 裹肚, 裳, 袴, 單袴, 衫鞋, 掩, 纏, 充耳, 幘目, 握手, 襪, 冒, 舉布 등이 있으며, 慎終錄과 比較해 보면, 小衫, 掩, 纏, 冒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掩, 冒는 문헌상에만 제시되고 있을 뿐 實物은 傳來되지 않고 있다.

2. 襪衣의 衣次와 色을 보면 衣次에 있어서는 朝鮮時代를 통하여 貢緞이 많이 쓰여졌고 그 외의 것은 紬, 繪, 布, 絹 등이며, 色은 白色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幘目, 握手, 冒는 紺이 검은 색이었으며 안은 붉은 색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冒는 上이 黑色, 下가 붉은 색이었다.

3. 襪衣의 치수에서는 幘目的 길이가 一尺二寸이고, 握手는 길이가 一尺二寸이며 폭은 五寸이다. 充耳는 대추씨 크기였고 冒의 크기는 質과 殺가 각각 七尺씩이었다.

4. 襪衣 중에서 幘目은 속에 솜을 넣고 四角에 끈을 댄으며, 冒에서 質은 上禮를 썼고, 殺는 下體를 썼으며, 小帶의 數는 착용자의 身分에 따라 다르나 君의 경우는 아래·위에 각각 7개이고, 大夫는 각각 5개이며, 士는 각각 3개씩이었다. 裹肚는 男子의 경우는 四角에 끈이 있었고, 女子의 경우는 아래 兩角에 끈이 없었다.

5. 小斂衣는 19稱이었고, 大斂衣는 士의 경우는 30稱이고, 大夫는 50稱, 君은 90稱이었다. 小斂具와 大斂具는 褥, 枕, 衾, 絞, 上衣, 散衣 등이 같고, 기능도 각각 동일하였으며, 上衣는 경건한 뜻을 표하여 거꾸로 놓지 않았다.

參 考 文 獻

- 金長生輯, 家禮輯覽. 肅宗11(1685)
 金長生編, 疑禮問解. 仁祖24(1646)
 徐名膺編, 攷事新書. 英祖47(1771)
 申叔舟等受命編, 國朝五禮儀序例. 成宗5(1474)
 _____, 國朝五禮儀. 木版本. 成宗6(1475)
 申義慶著, 喪禮備要. 木版本. 光海君13(1621)
 俞榮·尹宜舉撰, 家禮源流. 肅宗40(1742)
 柳長源著, 常變通攷. 正祖7(1783)
 李選著, 芝湖集.
 李宜朝著, 家禮增解. 純祖24(1824)
 李瀛著, 星湖僊說.
 李緯編, 四禮便覽. 憲宗10(1844)
 李恒福編, 四禮訓蒙. 光海君14(1622)
 李燦編, 四禮纂說. 高宗4(1867)
 正文公慎終錄. (金洙根: 1798~1854)
 朝鮮王朝實錄
 忠文公慎終錄. (金炳國: 1825~1904)
 韓山李氏慎終錄. (金貞圭의 妻<韓山李氏>: 1865~1915)
 高福男, “죽음—來世의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權浩直, 喪·祭禮常行抄錄, 서울, 回想社, 1986.
 金斗憲, “五服制度의 研究.” 震檀學報. 第5卷. 1936.
 金聖培, 韓國의 民俗. 서울, 집문당, 1980.
 金春東, “喪禮.” 韓國民俗大觀. 第1卷.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0)
 金漢重, 安東誌. 서울, 故鄉文化社, 198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1冊. 全南編. 서울, 文化財管理局, 1968.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서울, 新丘文化社, 1983.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9.
 石宙善, “李朝宮中 儀式節次에 따르는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 同大 論叢. 第5輯. (서울; 同德女大, 1975)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 資料選集. III. 서울, 教文社, 1982.
 柳在淵外 3人, 韓國風俗誌. 서울, 乙酉文化社, 1971.

-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 梨花女大 出版部, 1983.
- 柳喜卿·金美子·姜淳弟, “斂襲衣.”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查報告書. (溫陽: 溫陽民俗博物館 學藝研究室, 1989)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 李鍾洙, 四禮正解. 서울, 信和文化社, 1962.
- 李鍾恒, “우리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관한 研究.” 論文集. 第9輯(人文科學篇). (서울: 國民大, 1975)
- 李必英, “韓國古代의 葬禮意識 研究.” 論文集. 第17輯(人文科學篇). (大田: 韓南大, 1987)

- 張哲秀, “葬制와 副葬品.”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查報告書. (溫陽: 溫陽民俗博物館, 1989)
- 趙圻煥外 共著, 禮論. 서울, 誠信女大 出版部, 1983.
- 崔基福. “儒教의 喪禮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 成均館大 大學院, 1979)
- 春川文化院, 春州誌, 1984.
- 韓龍得, 冠婚喪祭. 서울, 弘新文化社, 198.
- 會寧郡民會, 會寧郡誌. 1978.
- 金奉鉉, 朝鮮의 通過儀禮. 國書刊行會, 昭和 57.
-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1937.
- 竹內照夫, 四書五經. 日本, 平凡社, 昭和 50.
- 何聯奎, 中國禮俗研究. 臺灣, 中華書局, 中華民國 72.